아시아 관광산업 시장의 '작은 거인'인 홍콩이 달라지고 있다. 쇼핑, 미식투어, 도심관광을 넘어 아트마켓, 와인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홍콩 야경의 자랑 '심포니 오브 라이트'. 사진제공 | 홍콩관광청

유럽 뺨치는 아트·와인천국…홍콩의 진화

세계적 예술품 경매업체 소더비 진출
내년부터 M+미술관 등 15곳 건설
와인 페스티벌, 관광객 인기행사로

아시아에서 관광산업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홍콩은 이 치열한 격전장의 '작은 거인'이다. 인구 720만명, 면적은 1104km²로 겨우 서울 1.8배. 하지만 해외관광객은 지난해 2777만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관광수입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181억 달러(약 19조8213억원)인데 반해 홍콩은 384억 달러다. 관광객 수 세계 11위, 관광수입 10위. 중국(관광객 수 4위, 관광수입 3위)에 이어 두 지표 모두 아시아 2위다.

●쇼핑천국 넘어 아트산업의 천국으로…홍콩의 야망

여행지로 홍콩하면 쇼핑과 미식투어, 도심관광을 떠올린다. 하지만 홍콩의 관광산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 엄청난 가격의 예술품 거래로 귀에 익숙한 세계적인 예술품 경매 업체들이다. 이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진출한 곳이 홍콩이다. 크리스티가 2010년 5월에, 소더비는 올해 5월 대규모 전시장을 열었다.

미술시장은 홍콩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이다. 각국의 트렌드세터들이 즐겨찾는 '홍콩의 청담동' 란콰이퐁과 소호 지역에서는 다양한 갤러리와 아트 숍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스위스의 '아트 바젤'은 5월에 열린 '홍콩 아트페어'의 지분을 인수하며 홍콩에 진출했다. 한국서도 서울옥션을 비롯해 여러 갤러리들이 홍콩에 진출했다.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가 없는 홍콩은 미술품도 역시 무관세다. 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다. 홍콩은 최근 카우룽 반도 서쪽에 25억 홍콩 달러(약 3792억원)를 투자해 '서카우룽 문화지구'(WKCD)를 조성하고 있다. 런던의 대표적인 예술관광 명소 '테이트 모던'을 연상시킬 'M+미술관'과 다목적 전시장, 콘서트홀과 광둥오페라극장 등 15개의 공연장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갤러리와 미술관, 박물관, 공연 등을 구경하러 뉴욕, 파리, 런던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앞으로는 홍콩으로 돌리겠다는 야심이다.

●와인페어의 향기로 취하는 홍콩의 가을

아트 갤러리와 함께 홍콩에서 부쩍 늘어난 매장은 와인전문점이다. 개성 넘친 와인바와 전문점이 즐비한 소호는 물론이고, 도심과 떨어진 오션파크가 있는 에버딘 지역에서도 세련된 와인전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와인은 아트마켓과 함께 홍콩에서 급성장하는 분야이다. 올해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카우룽의 뉴센트럴 하버프론트에서는 '홍콩 와인&다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른 와인페어들과 달리, 홍콩의 와인페어는 빅토리아 하버가 보이는 바닷가 산책로에서 열린다. 200개의 와인 부스와 100개의 음식 부스가 들어서고 프랑스 보르도의 고급 와인부터 신대륙의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 있다.

홍콩은 2008년 80%에 달하던 주세를 30도 이하의 와인에 면세하면서 와인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2009년 무려 20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홍콩 와인&다인 페스티벌'도 이때부터 시작해 이제 수십만 명의 와인애호가와 관광객이 찾는 인기행사가 됐다.

지난해 홍콩의 와인 수입은 84억4000만 홍콩달러(약 10조원). 이중 해외로 재수출한 것이 24억3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런 홍콩을 '와인 소비의 킹콩'이라고 표현했다.

신시아 렁 홍콩관광청 홍보본부장은 미술품과 와인 같은 새로운 분야의 육성에 대해 "기존 홍콩관광을 상징하는 쇼핑과 미식 외에 재방문자(repeater)를 늘리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홍콩의 부촌 '리펄스 베이' 색다른 볼거리

홍콩섬 남부의 리펄스 베이와 스탠리는 화려한 야경과 도심의 빌딩숲, 북적이는 인파로 익숙한 홍콩의 다른 모습을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시간을 투자해 가볼만한 곳이다.

리펄스 베이와 스탠리를 가는 방법은 쉽다. 홍콩섬의 대표적인 번화가 센트럴의 익스체인지 스퀘어에 있는 지하 버스터미널에서 스탠리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리펄스 베이를 거쳐 간다. 두 군데를 묶어 반나절 정도의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

아담한 해변을 끼고 있는 리펄스 베이는 홍콩에서 대표적인 부촌이다. 유명 스타와 부호들의 별장이 즐비한 미국 서부의 말리부 해안처럼 리펄스 베이에도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멋진 빌라와 아파트들이 자리잡고 있다. 30평 정도의 아파트 한달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1500만~2000만원에 달한다. 홍콩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리카싱의 집도 이곳에 있다.

으리으리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화려한 맨션을 구경하는 재미도 좋지만, 이색적인 틴하우 사원과 한가로운 해변의 풍광도 매력이다. 산자락에 즐비한 고가의 맨션과 달리 해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홍콩 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리펄스 베이

리펄스 베이에서 차로 15분 정도 더 가면 도착하는 스탠리는 유럽의 포구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바닷가의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우리네 옛 시장과 닮은 '스탠리 마켓'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스탠리 마켓은 길이 200m 정도의 재래시장으로 좁은 골목에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고급은 아니지만 '홍콩스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양한 잡화와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가격대는 비싸지 않지만 주인과의 흥정은 필수이다. 스탠리 마켓에서 조금 더 해변 쪽으로 나가면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나 와인,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다.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거리의 모습이 이국적이고, 도심과 달리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홍콩 | 김재범 전문기자

온몸에 피멍, 혹시 자반증?

자가면역성 질환…면역력 강화로 치료 가능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모(32) 씨는 최근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다. 그런데 신체에 피멍 같은 반점이 생겨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왜 이래?' '싸웠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웃어 넘겼지만 한편에선 창피하기도 했다. 김 씨는 단순히 휴가철 물놀이를 해서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하며 자연스레 호전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점들은 퍼져 나갔고 무더위에도 반팔이나 반바지 등의 의상착용에도 어려움을 겪자 한의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자반증' 이었다.

자반증은 언뜻 보기에는 피멍 같지만, 부딪쳐서 생긴 피멍과는 차원이 다른 피부질환이다. 이 질환은 피가 나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피부가 얇은 곳에는 붉은 빛, 두꺼운 곳에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반증은 인체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공격해 생기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비롯해 20대에서 30대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40~50대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반증은 체내의 면역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면역력을 바로 잡아주는 근본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엔 다양한 한방요법을 통해 자반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한방치료가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체내의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증상호전이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 이명기 원장은 "자반증에 대한 한방치료법은 화수음양단, 진수고를 통해서 면역계의 바탕이 되는 신정을 충분히 보충하여 근본적인 면역력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오장육부의 문제가 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소개했다.

자반증 한방치료는 스스로의 몸 관리만으로도 질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소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즉각적인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면역봉독약침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쌓여 있는 체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환을 시키는 왕뜸치료를 함께 시행하여 자반증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호전되게끔 한다. 한방치료를 통해서 자반증을 치료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환자가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길러주거나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음식을 섭취해주어야 한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관광공사-원주시, 여행상품 프로그램 개발 MOU

한국관광공사는 원주시와 산업관광 여행상품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원주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산업관광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3월부터 시와 공동으로 산업관광 대상지 20여 개를 답사하고, SNS 유명 블로거 초청행사 및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코레일과 협업해 기차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21일에 처음 출발할 예정이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원주에 도착하면 지역 관광명소와 함께 화장품회사(참존), 주방기기 제조기업(네오플램) 등을 방문해 체험 및 제조현장 견학을 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正品 가요 100년사 불후의 명곡
노래방 녹음라디오
도전 1100곡/ 가사도 나오는 최신 휴대용 노래방
▶오리지널 가수와 명곡가요와의 조화/ 도전 1100곡 2015년 출시!
▶녹음라디오 대형화면에 가사제공/ 1회충전: 20시간사용 (고성능 녹음기겸용-"라디오 생방송 즉시 녹음가능")
▶도전1100곡 -"스마트폰에서 재생가능"
◀ 추억의 팝송 정품120곡 출시!
탬존스/ 패티페이지/ 마마앤 파파스 등 주옥같은 명곡
전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증 정품 제품
기존 시중에서 판매하는 7080는 불법음원으로 원곡가수가 아닌 뽕짝 메들리가수 노래에 똑같은 노래를 여러 아마추어가수가 부르는 방식의 불법음원이며 자칫 고장이라도 나면 A/S 또한 불가능하며 "유통업자가 도산하여 생산이 않되는 상황이라"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보고 있다.
2015년 새로이 출시된 도전1100곡과 이미 출시된 503곡 명곡가요 노래방 녹음라디오는 오리지널가수의 멋들어진 노래와 또다른 조화로 큰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품음원을 사용하여 최상의 음악을 느낄수 있다.
정품SD음원카드
고급형 붐(BOOM-R8)
● LED 대화면 가사제공
● 자동선국 FM라디오기능
● 고성능 녹음기 기능 내장
● 중간볼륨 사용시 최대 20시간 사용가능
● 무게: 92g (베터리 포함)
● 사이즈: 108x55x21.5mm
● 색상: 블랙
가짜 불법 음원 사용은 대중음악 발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미자, 남진에서 박현빈, 장윤정까지 1100곡 수록!
선물용으로 최고!
www.sunsea.kr
KCC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을 필한 제품입니다.
등록번호: MSIP-REI-IDO-BOOM-R7
등록번호: MSIP-REI-IDO-BOOM-R8
구입문의: 1644-2464 입금계좌: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

살을 빼는 것 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쪄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정감있고 품위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쳐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 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체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아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 유전적 특이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계를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도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찐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약하거나 체력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법! 당당한 체격이 부러우십니까? 흡수가 빠른 체중증가에 「살찌오」 체중늘고 힘도 솟아!
salzzio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
특허 제10-1314762호
www.sunsea.kr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大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大할인 행사
2015년 신제품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럴 때 사용하세요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EARPASS Q80
ESONIC
VIVO
www.sunsea.kr
광고제작문의: 011-204-4401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림을 제거하신 분
무료체험 오시는 길 :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구입문의 : 1644-2464 입금계좌: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